

##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 임종 앞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 연명의료계획서 등 작성

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미 작성됐더라도 본인의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연명의료 중단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로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위의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연명의료정보포털을 구축해 누구나 본인 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가능한 기관의 목록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들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신설해 적용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단위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8월 4일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부분은 향후 의료기관 종별, 질관리 특성, 진료 연속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 제

공체계를 확대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한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범사업 결과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3개월 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총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범사업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모두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충청 순으로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남성 60건, 여성 47건이었다. 연령대는 50~70대가 80%를 차지했다. 전체의 90%는 말기 암환자에 대해 작성됐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은 54건 발생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27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 23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 4건이었다. 1월 15일 기준 전체 이행 환자 중 47명이 사망했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 간협 선관위, 임원 후보 홍보물 배포

### 후보 프로필 간협 홈페이지에서 열람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만숙)는 임원 후보들의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해 전국 대의원과 간협 중앙회 이사,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들에게 우편으로 2월 12일 보낼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이 제출한 콘텐츠를 검토한 후 브로슈어(1회 발송), 이메일(2회 발송), 문자 메시지(2회 발송) 등 선거 홍보물을 일괄 제작해 발송한다.

앞으로 2년(2018~2019) 동안 대한간호협회를 이끌어 갈 제37대 회장 후보로는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단독 출마했다.

신경림 회장 후보는 러닝메이트 제1부회장 후보로 박월희 전 병원간호사회장, 제2부회장 후보로 김영경 부산기톨릭대 간호대학장을 지명했다.

선출직 이사 후보는 다음과 같다. △강윤희(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박경숙(중앙대 직

간간호대학 학장) △박미영(건국대병원 간호부장) △손혜숙(강원도간호사회 회장) △송라윤(충남대 간호대학 교수) △유재선(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 △조정숙(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 △탁영란(한양대 간호학부 학부장).

감사 후보는 다음과 같다. △김희순(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박순화(전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 △이영규(고려대 구로병원 간호부장).

임원선거에서는 새 회장과 선출직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한다.

선거는 오는 2월 21일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85회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실시된다.

임원 후보 프로필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 개설된 선거관리위원회 전용창에서 볼 수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임원 후보 선거광고 안내

간호사신문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임원 후보의 선거공고를 이면 2월 8일자 신문 1면 및 3면에 게재합니다. 광고문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광고비는 후보가 부담합니다.

## 간호협회 대표자회의 열려

### 대의원총회 상정할 사업계획 등 심의

대한간호협회는 대표자회의를 1월 31일 협회 대강당에서 열고 제85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대의원총회는 2월 21~22일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대표자회의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진,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대표자들은 간호협회가 2017년에 추진한 사업결과 및 결산 보고를 받고, 대의원총회에서 심의할 2018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검토했다. 총회에서 채택할 건의문(안) 및 결의문(안),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에서 제출한 상정안건 등을 검토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수립

### OECD 자살률 1위 2022년 탈피 목표

2022년 OECD 자살률 1위 탈피를 목표로 하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1만3092명,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10만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목표 달성 시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우리나라의 자살문제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외국 정책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성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았다. 자살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관리, 자살사건 발생 후 사후관리·지원 강화 등 총 6개 분야 54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 5년간(2012~2016)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는 등 과학적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 명을 양성한다. 방문간호사 등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등을 게이트키퍼로 우선 교육·활용한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고, 보건요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우울증 스크리닝을 강화한다.

또한 적극적인 개입·관리를 통해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수요가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 버스'를 운영한다. 정신과 상담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 경감 등으로 초기단계 치료를 적극 유도한다.

문화콘텐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 유통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등 자살을 촉발시키는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자살유가족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유가족 심리상담·치료지원 등 수요에 따른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밖에 노동자 및 실직자 자살예방을 위해 사업장 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험이 높은 직군에 대한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사회부적응 등으로 자살위험이 높은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 노인, 청·장년, 군인, 학교밖청소년 등 대상별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자살예방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주혜진 기자 hjoo@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기호1번 제37대 대한간호협회 회장단 후보 신경림·박월희·김영경

# 간호혁신과 열정으로, 간호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로의 도약!



제1부회장 후보 박월희

회장 후보 신경림

제2부회장 후보 김영경

### I 대국민 간호정책의 위상을 제고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1 거버넌스(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해 대국민 간호정책의 위상 제고
- 2 보건의료면허전문분야, 노동조합과의 정책연대를 통한 간호법 제정
- 3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역사회로 확대

### II 간호사가 활기차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간호현장을 만들겠습니다!

- 1 병동간호관리체계 혁신으로 간호사 1일 8시간 근로 준수
- 2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인력 중심으로 입원료 수가 전면 개편
- 3 간호사의 자긍심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간호체계 및 경쟁력 제고

### III 협회 10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간호 백년대계를 준비하겠습니다!

- 1 보건의료 대표조직의 위상에 부합하는 간호사 회관 건립
- 2 투명하고 안정된 재정관리를 위한 대한간호협회 경영 혁신
- 3 새로운 간호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로서 대한간호협회 100년사 편찬

### IV 지부 중심으로 조직 혁신, 산하단체 중심으로 정책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 1 지부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로 협회 조직 운영 체계 혁신
- 2 산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로 간호정책 혁신
- 3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간호현장 중심의 보수교육 체계 혁신